

沃川 大川里 遺蹟의 新石器時代 집자리 發掘 成果

韓昌均·金根完·田鎰溶·具滋振 (韓南大學校 博物館)

許文會 (서울大學校 名譽教授)

金貞熙 (忠北大學校 博士課程)

I. 머리말

충청북도 옥천군(沃川郡) 옥천읍(沃川邑) 대천리(大川里) 유적(지도 1, 지도 2)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대전 북·남 연결선 구간의 건설사업지역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한남대학교 박물관 주관으로 이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는 1999년 5월 29일부터 1999년 7월 27일까지 이루어졌다. 지표조사의 결과에 따라 2000년 5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전통과구간인 북연결선 지역에서 7개 지점, 옥천통과구간인 남연결선 구간에서 6개 지점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시굴조사 과정 중, 대천리 1지점에서 신석기시대의 집자리 1기 및 구석기시대 유물포함층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지점에 대한 공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유구의 수도 적어 관련기관의 허가를 얻어 긴급 발굴조사를 하게 되었다. 조사를 처음 시작할 무렵, 신석기시대의 집자리가 발굴된 지점에서는 이 유구와 관련된 고고학적 증거가 지표상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지형의 생김새가 특이하여 시굴조사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집자리의 구조가 차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옥천역에서 영동으로 연결되는 4번 국도를 따라 1.5km 정도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현 경부선 철도와 인접한 낮은 구릉이 있고, 이 구릉의 끝자락에 대천리 유적(북위 36° 17', 동경 127° 34', 해발 약 108m)이 자리를 잡고 있다. 유적의 북쪽과 남쪽 지역은 논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서쪽 일부는 과수원이 나 밭으로 개간되었다. 유적은 옥천분지의 외곽 지형을 두루 바라볼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한다.

발굴조사는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너비 20m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구석기시대 유물포함층, 신석기시대 집자리 1기, 성격을 알 수 없는 움구덩 3기, 최근에 조성되어 이장한 민묘 4

기가 확인되었다.

발굴조사를 진행하면서 대천리 유적의 신석기시대 집자리가 매우 특이한 구조로 갖추어졌음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유적을 방문하거나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였던 여러 분들도 이와 같은 점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집자리 유구 안에서는 토기와 갈돌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수의 농경도구 등이 발굴되었다. 또한 집자리 바닥 일부에 깔려 있었던 재층의 분석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주목할 내용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허문희 박사는 여러 지점에서 채취된 시료를 대상으로 탄화 곡물의 분석작업을 하였다. 그 분석결과가 발굴단에 통보된 것은 2001년 11월이었다. 이에 앞서 김정희는 재층에서 채취된 시료에서 벼의 규소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II. 집자리의 구조와 특징

대천리 유적에서 남서쪽으로 약 2.5km(직선거리) 떨어진 곳에 마성산(馬城山, 해발 497m)이 있다. 이 산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뻗어내리는 산줄기는 유적 언저리로 오면서 차츰 낮아져 얇은 구릉지대를 형성한다. 유적은 이 구릉지대의 동쪽 끝자락 등줄기에 자리를 잡고 있다(사진 1). 유적의 동쪽으로 약 8m 떨어진 곳에 경부선 철로가 놓여 있다.

25~30cm 두께의 겉흙층을 걷어내자, 집자리의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직사각형 형태로 윤곽이 드러난 유구의 발굴 초기에 발굴 조사단은 그 구조와 특징이 청동기시대의 집자리와 유사한 성격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집자리 안쪽을 일부 발굴하는 과정에서 출토한 작은 토기 조각들에서도 신석기시대의 뚜렷한 특징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동기시대의 집자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그러나 집자리 안의 발굴범위를 확대하면서 그와 같은 토기 조각이 신석기시대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집자리의 서벽과 인접한 바깥부분을 조사하였는데, 이곳에서 특이한 형태의 움구덩이 확인되었다.

대천리 유적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 집자리의 평면형태는 직사각형이며, 동벽 가장자리 일부가 파괴되었다. 집자리의 크기는 잔존 동서 길이 950cm, 남북 너비 510cm, 최대 깊이 35cm이다(그림 1, 사진 2). 길이축은 동-서 방향으로 남향집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움벽은 화강암풍화토를 거의 수직으로 파서 만들었다. 북벽의 서쪽 부분에서는 움벽에 진흙을 발랐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붉은 색을 띠며 단단하게 굳어진 흙덩이가 드러났는데, 이것은 불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추정된다. 바닥은 대체로 평탄하고, 부분에 따라 황백색 모래를 깔았던 것으로 나타난다.